

밝아진 불빛

1978년 5월 어느날이었다.

이날 저녁 만수대예술극장 분수공원을 지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문득 승용차를 세우도록 하시고 한동안 그곳을 바라보시었다.

그러시던 그이께서는 동행한 일군들에게 분수공원이 좀 어두운것같지 않은가고 물으시었다.

일군들은 인차 대답을 드리지 못하고 서로 마주보기만 하였다.

공원의 여러곳에 무리등이 설치되어있는데다가 분수못안에서는 갖가지 색조화를 이루며 색등빛이 내비치고있었기때문이었다.

잠시 일군들을 둘러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지금의 조명을 가지고서는 밤에 사진을 찍을수 없을것같다고 말씀하시었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인민들이 놀러나와 밤에도 사진을 찍을수 있게 조명을 하여주면 얼마나 좋아들 하겠는가고 하시면서 공원을 인민들에게 자그마한 불편도 없도록 잘 꾸려줄데 대하여 따뜻이 이르시었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공원의 조명을 경기장의 투광등처럼 밝게 해주자고 하시면서 몸소 설치할 투광등의 대수와 용량까지도 헤아려주시었다.

인민에 대한 우리 장군님의 사랑은 이렇듯 분수공원의 밝아진 불빛에도 뜨겁게 어리어있다.